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신건축

2005년 5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오는 9월 25일까지 일본 아이치 현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5일본국제박람회의 내용이 특집



으로 다루어지면서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자연의 예지(叡智)'를 테마로 한 이번 박람회의 건축역시 박람회의 테마에 맞추어 '환경친화건축'이 각 파빌리언의 디자인에 있어 기본적인 테마로 깔려있다. 이 외에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단게 켄조에 대한 추도의 글들이 권두에 소개되었다.

■특집: 2005일본국제박람회(愛·地球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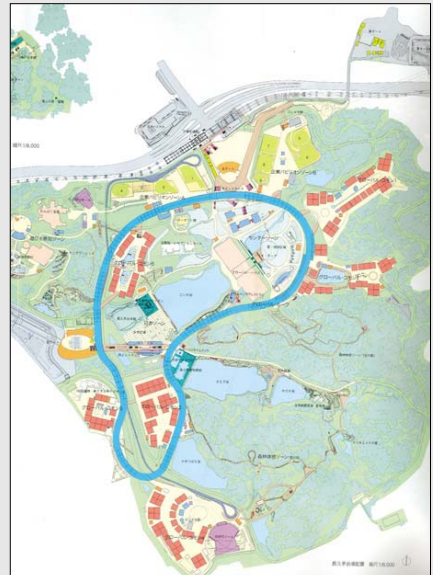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로부터 35년만이며 21세기 최초의 만국박람회인 2005 일본국제박람회가 3월 25일 개막되었다. 회기는 9월 25일까지로 총 185일간 열리며, 1,500만명의 입장객을 예상하고 있다. 회장(會場)은 나고야시의 동부 구릉지대로서 지형의 기복이 제법 있으며 녹음이 울창한 곳이다. 약 158ha의 나가쿠테(長久手)회장과 약 15ha의 세토(瀬戸)회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곳 모두 기존의 지형에 거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회장계획으로 이루어졌다. 나가쿠테회장에서는 전장(全長) 2.6km, 폭 21m의 공중회랑 '글로벌 루프(Global Loop)'가 세계 120개국과 4개 국제기관의 파빌리언들을 모아놓은 6개의 '글로벌 커먼(Global Common)'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 또한 이번 회의장 계획의 큰 특징이다. 회장의 파빌리언 건축에서는 박람회 테마인 '자연의 예지'를

반영하여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회장계획의 특징

1996년 일본의 아이치와 캐나다의 캘거리가 2005년 만국박람회의 유치에 경쟁했을 당시 일본정부가 제시한 박람회장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카이쇼노 모리'라는 540ha의 숲속에 주거단지의 개발과 함께 박람회장을 만드는 것이 일본정부의 본래 생각이었으며, 상당한 절토와 성토를 요하면서 기존의 녹음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계획은 당시 박람회장 계획을 맡았던 건축사들의 반대로 주거단지 개발을 배제한 환경친화적인 회장계획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유치가 확정되자 일본정부는 이 계획안을 단지 유치를 위한 안으로 사장시켜버리고 본래 의도했던 주거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안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BIE(박람회국제사무국)를 비롯한 제외각국이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자 결국 일본 정부는 주거단지 개발의 중지와 함께 카이쇼노모리에서의 개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개최지 선정의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나가쿠테 청소년 스포츠공원'이다.

이 스포츠공원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구릉지에 사이클링 로드,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을 위한 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드, 검도장과 유도장, 아이스링크와 운수 풀장 그리고 합숙시설 등이 흩어져 있었다. 14개의 연목과 녹지로 둘러싸인 자연속의 훌륭한 공원이었으나 훌륭한 스포츠 공원이 반드시 훌륭한 만국박람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회장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이번 박람회장은 종래의 만국박람회장계획의 상식에서 본다면 '두 곳으로 나누어진 회장', '좁은 회장', '고저차가 있는 회장'이라는 세 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반대로 이번 박람회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1) 두 곳으로 나누어진 회장 -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나가쿠테 회장과 더불어 소규모 회장으로 선정된 세토회장은 150년 만국박람회 역사상 최초의 시민참가형 회장으로 자리잡았으며, 나가쿠테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좁은 회장 - 과거 150년간의 만국박람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장이 적어도 100ha정도의 평지를 시설용지로 확보하였다. 나가쿠테 회장은 비록 158ha이지만 그 절반은 희귀한 곤충과 식물 등도 서식하고 있는 수면이나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박람회장에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70~80ha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는 350ha를 사용하였고, 2010년의 상하이 만국박람회에서는 580ha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번 박람회장은 지극히 컴팩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3) 고저차가 있는 회장 - 회장내에 존재하는 최대 40m의 고저차를 가진 부지에서 대폭적인 부지의 변형 없이 어떻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한 관람로를 만드는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2001년 봄에 제안된 '공중회랑' 안은 회장후보지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박람회 시설부문의 치프 프로듀서인 하라타 건축사가 떠올렸던 아이디어였다. 회장을 순환하는 이 공중회랑은 마치 산간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교량구간처럼 기복이 심한 회장을 완만한 구배의 경사로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루프(Global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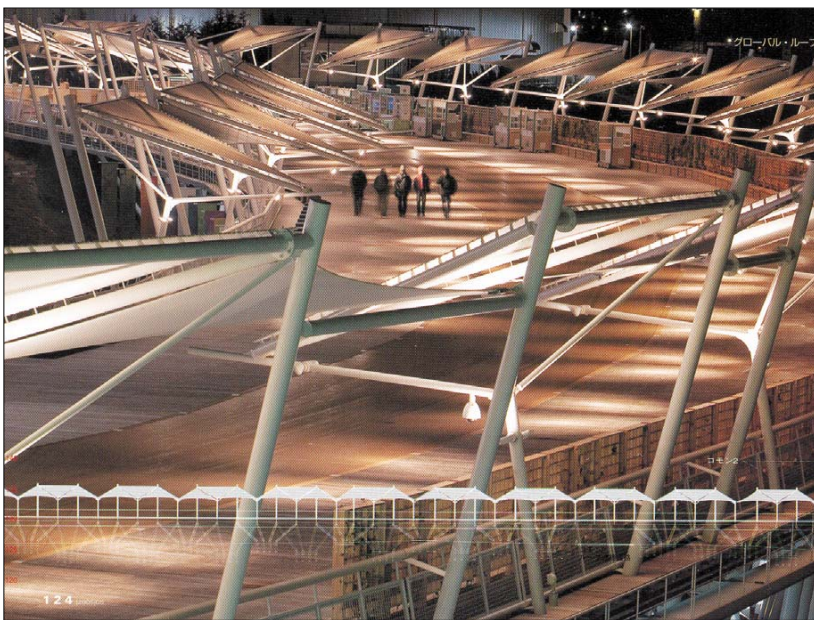
앞서 밝힌 바대로 고저차가 큰 회장에서 지

형의 변경 없이 장애물 없는 간선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 회장계획에 있어서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희귀종의 생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을 피해가면서 여러 가지 동선의 모양을 스터디한 결과 지금의 호리병 모양의 동선을 설정하였다. 이것이 폭 21m, 전장 2.6km의 글로벌 루프이다. 글로벌 루프는 글로벌 커먼이라 불리는 6개의 공식 참가국의 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일주(一周) 2.6km 중에서 일부 접지부분을 제외하고 2.0km 부분이 공중회랑으로서 브릿지구조를 하고 있다. 이 공중회랑 구상은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내왕자에게 있어서 박람회장 동선의 파악이 쉽다는 점과 비일상적 공간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배리어 프리한 동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되어 채택된 것이다.

교각의 길이는 최대 약 16m, 평균 7.5m이다. 구조설계가 그대로 외관디자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설계기와 더불어 부양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여러 스테디를 거쳐 완성된 철선(鐵線)구조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힘 모두에 대해 기울어진 기둥으로 저항할 수 있는 훌륭한 구조시스템이다. 또한 리유스(reuse)와 리사이클(recycle)을 고려하여 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파일(pile) 또한 끝부분에 있는 회전우근(回轉羽根)을 역회전시키면 뽑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노면은 보행감을 높이고 보행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목재를 마감재로 사용하였으며, 21m 폭원의 중앙부에는 긴급차량이나 전기 트램의 통행을 고려하여 목재칩 50%, 플라스틱 50%의 복합재인 재생유기성목재를 사용하였다.

글로벌 커먼(Global Common)

마스터플랜을 세우기에 앞서 6개월간의 박람회를 위해 부지의 모습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축구, 야구, 테니스 등의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 5만평방미터의 공식참가국의 파빌리언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의 제외국 및 각국 제기관의 파빌리



글로벌 루프(Global Loop)



각 국 파빌리언에 제공된 '모듈' 들

은 각국이 각각 부지를 마련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박람회협회가 '모듈'이라 이름붙인 각변 18m의 공간유니트를 국가별로 최대 5개까지 제공하여 참가국은 일정한 룰 안에서 파사드나 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만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결과 개발도상국 등의 참가비용부담이 경감되었으며, 120이 넘는 국가와 국제기관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관이 너무 단조로워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모듈방식은 각 참가국의 부담경감과 동시에 폐막 후 3R(reduce, reuse, recycle)의 촉진 또한 의도하고 있다. 3R에 관해서는 와세다대학으로부터의 조언을 얻어가며 검토를 진행하였다. 해체된 부재의 리사이클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듈을 이설하여 다른 기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우스'를 보급하는 것 또한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건축의 중고부재는 잔존강도나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으며, 공공건축물도 새 부재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중고차의 심사시스템과 같은 공공적인 인증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건축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의 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스페인관

모듈을 사용한 파빌리언은 자원의 재활용과 참가비용의 경감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낳았

만 매년 박람회 건축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건축적 실험들에 관심을 갖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한국관, 미국관, 프랑스관 등 대부분의 파빌리언들의 외관은 간단한 간판의 이미지 구성으로 끝났으며, 제한된 구조체 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만으로는 건축적 실험의 한계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우수 건축잡지들이 앞 다퉈서 소개했던 하노버 박람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끌만한 외국 파빌리언은 단연 스페인관이다. 기존의 모듈 벽체에 새로운 파사드를 추가하였으며, 그 설계 또한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건축사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커먼3에 마련된 스페인관이 각국의 파빌리언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띠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외관이다. 이 외관은 스페인의 전통적 건축공법 '셀로시아(celosia: 격자창)'이다. 기설 모듈의 벽으로부터 3m 이격된 위치에 6각형의 도기(陶器)로 된 6종류의 블록을 기하학적으로 쌓아 높이 약 11미터, 폭 5cm의 벽을 만들었다. 사용된 셀로시아는 스페인 국기를 상징한 적색과 황색으로부터 변형된 6가지 색상이 있다. 와인이나 투우의 적색, 태양과 모래의 황색... 처럼 이들은 세계적



스페인관

으로 스페인을 상징하는 색상들이다. 또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공존하는 스페인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는 실내공간 디자인에 나타나는데 실내의 구성은 하나의 커다란 방(교회의 중앙회랑을 연상)을 중심으로 7개의 방이 연결된 형태를 취하였다. 이 방들은 모두 6각형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고딕의 볼트나 이슬람의 반구 돔이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다.



스페인관

일본관과 일본에서 제작한 기타 시설들

나가쿠테 일본관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제작한 박람회 시설들에서는 단연 목재를 활용한 구법이 눈에 띈다. 최근 10여년 간 꾸준히 목구조를 활용하여 대공간을 구축하는 실험을 해 온 일본으로서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니혼세케이(日本設計)가 설계를 담당한 일본관 파빌리언은 대나무로 된 트러스와 피막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관에서는 3R을 실현하기 위해 11개의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신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신기술에는 대나무를 활용한 구조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식품폐기물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외벽, 흙으로 되돌아가는 벽돌(굽는 온도를 낮추어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나무를 활용한 구조체는 '지구시민촌'의 구조물에도 활용되었으며, 이 밖에도 영빈관, 시민파빌리언, 세토 일본관, 박람회장의 게이트 등에 목재가 구조체와 마감재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박람회의 센터존에 마련된 '바이오 링(B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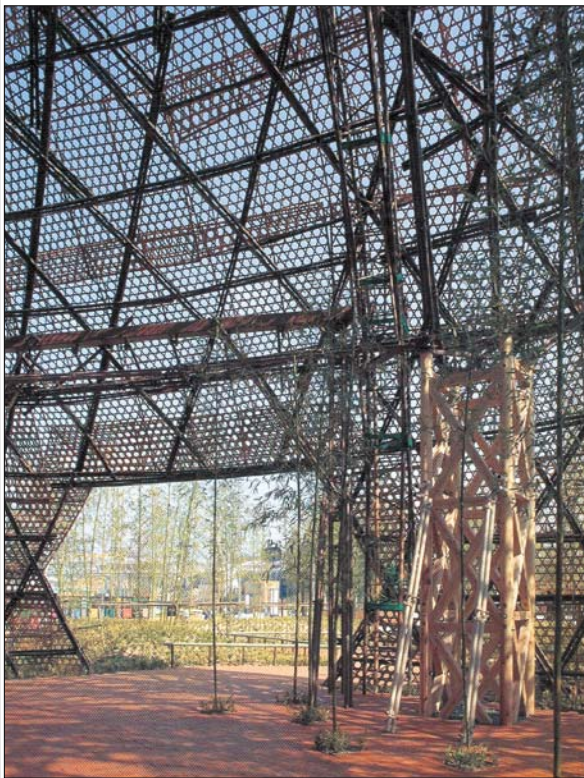
세토 일본관

lung)'은 외벽에 식물이 설치된 '녹화패널'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컨셉을 보인 것은 기업파빌리언인 '미쯔비시 미래관'이며, 다른 기업파빌리언들은 철골을 사용하면서 해체 후 재사용을 고려한 점을 박람회의 테마와 연관 지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환경친화 건축의 진면모를 보이다

이번 박람회의 건축물들은 화려함과 세련됨을 앞세웠던 박람회 건축의 경향과는 크게 반대되는 것이다. '모듈'의 사용으로 인해 참가국의 파빌리언들은 간편건축(cardboard architecture)이 되어버린 느낌도 없지 않지만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 속에 친환경 건축의 패러다임이 갖는 진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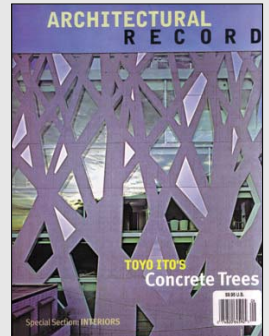


나가쿠테 일본관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6월호

최신작으로 Toyo Ito의 일본 도쿄 Tod's Omotesando Building, Bernard Tschumi의 스위스



Vacheron Constantin Headquarters and Factory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타입별 연구로는 요양원을 다루고 있다. 비평 및 이론분야에서는 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최근의 논쟁, 건축계에서 건축이론의 위상 재고에 대한 논의가 게재되어 있다.

■ 건축이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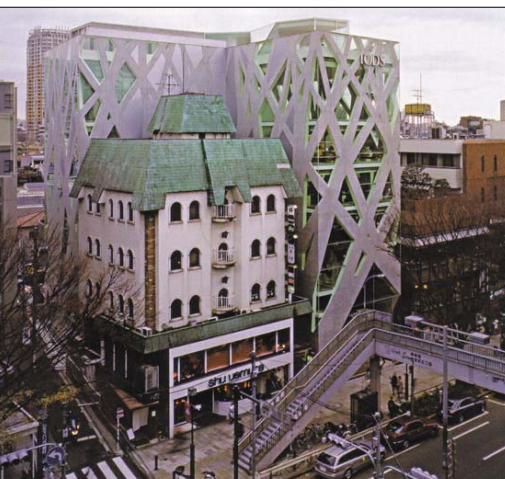
Michael Speaks가 기고한 이 글은 건축계에서 이론의 가치와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현황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대학교들은 막시즘과 해체주의에 바탕을 둔 아방가르드적 가치를 지향해왔다. Jacques Derrida의 철학을 건축에 접목시킨 Peter Eisenman, 막시스트 역사학자 Manfredo Tafuri의 시각을 미국에서 확장시킨 K. Michael Hays의 소위 '비판적' 이론과 건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순수한 건축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제도권에 저항하는 건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새롭고 개혁적인 건축은 바로 시장 속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George Baird가 소위 'post-critics'라 명명한 신진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건축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축의 '비판적' 기능에 더 이상 무게를 두지 않는 이들 중 일부는 이론 자체가 새로운 건축의 생산에 더 이상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아방가르드 이론이 개혁지향적인

건축문화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들에 어떤 제동을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건축계의 앞날을 열어갈 새로운 시도들이 아카데미나 이론계가 아니라 소형 사무실의 작업실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저커팅기 등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1:1 스케일의 모형까지 실제 재료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즉시 만들어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무 작업환경이다. Design Prototyping을 통해 다양한 구상의 디자인 및 시공상 문제점을 짚어내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해결안을 제공하며, 공동작업을 촉진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사고와 제작 사이의 간극(이론과 실천이라는 이분법이 여기에 기초해 있다), prototype과 최종 제작물 사이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권 역시 이러한 비선형적 개선 방식이 주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근작소개

Toyō Ito & Associates, Architects의 일본 도쿄 Tod's Omotesando Building

Tod's 건물이 들어선 Omotesando 가는 많은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고급 브랜드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L자형으로 생긴 대지로 인해 10m 만이 주가로에 접했기에 특이한 입면구성만으로는 건물의 정체성



Tod's Omotesando Building

을 구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Toyō Ito는 구조와 표피가 결합된 전체조직을 고안해냈다. 입면이 9개의 서로 겹쳐진 나뭇가지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내부는 완전한 무주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커튼월 구조를 차용한 주위의 대부분 건물들로부터 뚜렷이 대별된다. Ito의 표현에 따르면 구조적 합리성이 내재돼 있다는 나뭇가지 구조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지해야 할 하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폭도 점차 좁아진다. 이 구조체 사이로 270개의 개구부가 있으며, 프레임 없는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로 채워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3층까지의 상점, 2개층에 걸친 사무실, 이벤트 공간, 회의실, 옥상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피쪽으로 주요 수직통로를 둬으로써 중심부 상점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Sendai Mediatheque, 런던의 Serpentine Gallery Pavilion에 이어 Ito의 구조적 모험을 다시 보여준 이 작품은 특히 절제된 구조적 표현을 통해 초시간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신작으로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미국 루이지애나 주 Shaw Center for the Arts, Vincent James Associates Architects의 미국 위스콘신 주 Porter Boathouse, Bernard Tschumi Architects의 스위스 Vacheron Constantin Headquarters and Factory, Krueck & Sexton Architects의 미국 일리노이 주 Shure Technology Center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요양원

환자의 편의와 쾌유를 위해,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병원들은 호텔과 같은 환경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행동연구과학자 Roger S. Ulrich는 광활한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이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 투약횟수도 적고 입원기간도 짧은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시설 자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자연에 접해있는 입지환경도 그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주위 자연

환경을 내부에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있는 사례로 Herzog & de Meuron의 스위스 바젤 REHAB, ALTUS Architecture+Design의 미국 미네소타 주 Dalseth Family Dental Clinic이 소개되어 있으며, Cambridge Seven Associate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Yawkey Center는 도심의 경우 어떻게 입지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바젤 REHAB

■ 기타

상하이 인근 킵푸(Qingpu)의 활발한 건축붐 소식, 건축의 상징성에 대한 일련의 논쟁, 그린 빌딩 평가 시스템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재고, 최신 인테리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2005년 6월

Zaha Hadid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등 자동차 관련 오피스, 전시장, 공장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 건축과 자동차

자동차와 근대건축은 같은 역사의 궤를 따라 왔다. 자동차와 그 대량생산 체제는 근대건축의 논의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르 꼬르뷔제는 빌라 사보아를 1929년형 Voison의 회전반경에 맞춰 설계했으며, 자동차의 미학과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Citrohan 주택을 고안하였다. 하지만 대량생산체제를 곧바로 근대건축에 적용시켰던 것은 Albert Kahn으로, 그는 Ford사를 위해 미학을 배제한 기능주의 공장을 설계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와 형식의 건물을 생산해냈다. 생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로스앤젤레스, 밀턴 케인즈에서부터 브라질리아까지 수많은 도시들의 체계가 자동차 도로를 중심으로 조직 혹은 재조직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관계는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자동차가 지닌 유선형의 형태적 특성이 건축형태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Zaha Hadid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라이프치히 교외의 평원에 위치한 BMW의 새 공장단지는 최신 생산기술, 브랜드, 대규모 투자와 스타건축가의 참여가 한 데 어우러진 유럽의 가장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였으며, 세계의 거대한 생산공장과 Zaha Hadid의 센트럴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 제작 공장 페인트 공장 조립공장 사이에 위치하여 각 공정을 연결해주고 있는 센트럴 빌딩은 전시장,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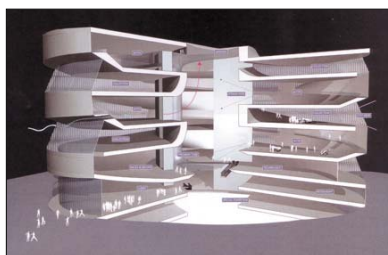
오피스, 연구실, 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여있는 복합건물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가 차체 제작 공장에서 페인트 공장으로 옮겨가는 경로가 건물 내의 로비, 오피스, 식당 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체 공정이 개별 작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피라네치의 그림과 같은 공간감을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Hadid의 역동적인 형태적 실험에 다중적인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융합된 결과이다. 공장과 오피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제품과 공정의 구분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열린 구성은 Self-Compacting Concrete의 사용으로 가능했다.

그 외에 Jakob+MacFarlane의 프랑스 Boulogne-Billancourt Communications Centre, Shuhei Endo의 일본 오사카 토요나카 자동차 전시장, Coop Himmelb(l)au의 독일 뮌헨 BMW 판매 및 이벤트 센터, UN Studio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박물관, Hentrich-Petschnigg & Partner의 독일 라이프치히 자동차공원, Szyszkowitz + Kowalski의 오스트리아 그라츠 자동차공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2005년 Aichi 일본 국제 박람회에 대한 보고, 최신 주택 사례로 Denton Corker Marshall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Bass Strait 주택 및 작업실, Daniel Libeskind의 첫 번째 중국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실장)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박물관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청/(042)841-5725 · 청양지역회청/(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옥천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9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